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이달의 캠페인 - 예배 시간 10분 일찍, 기도와 찬양으로

◎ **송년주일:** 한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 **표어:** 2014년 교회 표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 **당회:** 12월 정기 당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기간:** 2013. 12. 31(화)-2014년 1. 2(목) 주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시편 133편 1절)

**주소:** 203 Falls Road Hunua RD3, Papakura 당일날 5시부터 입장 할 수 있으며 6시까지 도착 완료해야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침구류, 성경찬송, 버너, 부탄Gas(공동체별로 2개씩), 운동화, 세면도구 등

**프로그램:** 송구영신 예배(성찬예식), 공동체별 식사와 교제, 천로역정, 성경지리 특강, 레크레이션, 야외 활동 등.

◎ **새벽기도회:** 2014년 1월 3일 새벽기도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모임:** 청년부 송년 모임이 담임목사 가정에서 오늘 오후 6시에 있습니다.

◎ **감사:** 성탄 예배와 축하잔치 그리고 식사 교제를 위해 수고하신 성도들, 밀알 장애우들을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2014년 1월 새벽 기도회 본문

10일: 히 6:1~12 성숙과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

17일: 히 9:11~22 죄 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 흘림

24일: 히 11:8~16 믿음은 암담한 현실에도 소망을 보게 합니다

31일: 히 13:18~25 모든 것 위에 기도와 축복을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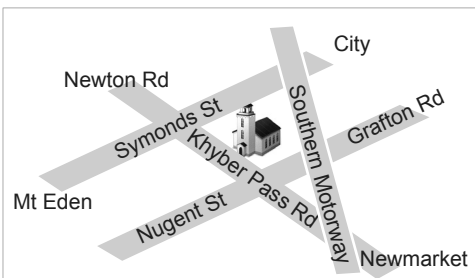
밀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오시는 길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 송년주일 2013년 12월 29일

15권 52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 그래도

늦은 나이에 장손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다. 그때 이미 먼저 결혼한 시동생의 아들이 벌벌 기어 다니고 있었다. 게다가 난 한 아기를 놓친 후 늦게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 무렵엔 한글 이름을 짓는게 유행처럼 번질 때였다. 아름이, 힘찬이 등 예쁜 이름들을 많이 지었다. 낳기 전까지는 성별을 모르던 시절이니 남편과 함께 만약 딸을 낳으면 새로 태어난 누구네 하는 '새네'라고 지으면 어떨까 하고 농담으로 얘기하며 웃곤 했었다. (참고로 남편의 성은 김씨다.) 어느날 새벽녘 머리술이 새까맣게 맑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 조산원의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미역국을 같이 먹고 산고를 함께 했던 남편은 무릎이 튀어나온 양복 차림으로 출근하면서 "그래도 차 한 잔씩은 돌려야겠지?" 한다. 그래도라는 단어가 푹 뒤듯 생경하게 들렸다. 저이가 정말 김이 셋나봐, 난 좋지만 한데... 프악한 표정으로 올려다보는데 눈치 빠른 시어머님이 내 손을 감싸 쥐면서 "어머야, 첫 딸은 살림말천이야, 고름 고름 길치않구. 자래 뭘 몰라서 기래." 평안도 사투리로 나를 위로 했었다. 그 후론 "그래도"라는 부사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만난 M집사가 자기 남편이 나에게 사과드릴 일이 있노라 하면서 남편 집사님을 불러온다. 며칠 전 앞에서 버벅대던(이건 내 표현이다.) 차에 경적을 울리고 지나치다 보니 운전대를 내가 하고 있던란다. 난 알지도 못했었다. 웬만한 경적은 과녁치 않고 나의 길을 가는 게 내 운전철학이기 때문이다. 불자동차나 응급차의 사이렌만 무서워한다. 그때 아마도 차선변경 깜빡이를 켜고서도 쉽게 진입을 못 했던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박자 늦은 출발을 했거나... 아무튼 경적을 울린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꾸 죄송하다 하는 것은 그래도, 그래도 같은 동지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료이기 때문이었을 거다.

그래도라는 단어는 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을 이끌고 오기도 한다. 그래도 내가 왕년에 이랬었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하며 어려운 일에도 무릎 꿇지 않고 이겨낸다면, 그래도의 뜻은 극명하게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각 사람마다 웃기도 또 슬프기도 했을 한 해가 저문다. 그래도 총성 없이 평화로운 또 좋은 자연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나는 감사한다. 힘들었던 지난 일들을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리워지는 것은 웬일일까? 새해가 오고 있다. 어떤 날들이 닥쳐올지 전혀 모르면서도 두렵지 않은 것은 그래도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경자 권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369-5077 Ph: 475-6312

##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90:4, 9, 12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35장	다함께
※ 성서교독	123. 주현절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84장	다함께
대표기도	현석호장로	
성경봉독	출애굽기 3:1-12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과거를 떠나라	이태한목사
찬송	301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청년 모임 (15:00)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김정훈 형제

## 수요예배 (19:30)

수련회

기도 / 김태만 집사

**천로역정 줄거리 5:** 칠후 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찬을 덮었다. 그는 빠져 죽어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았다. 소망이 몇 번씩이나 그를 건져냈지만 그는 이내 가라앉기를 거듭했다. 소망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면서 말했다. “형제여,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릴 영접하려고 서 있군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 하곤 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요. 내가 당신을 안 후로 당신은 늘 소망을 갖고 있었지요.” “당신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형제여. 내가 분명히 올바르게 행했다면 지금쯤 그가 일어나사 나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해 그가 나를 울무 가운데 몰아 넣으시고 날 떠나셨습니다.” 그에게 소망은 이렇게 말했다. “기운을 내십시오. 환난 때에 그에 의지하여 사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큰 음성으로 외쳤다.

“아, 내 눈에 다시 그가 보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사43:20).’ ” 이에 두 사람은 용기를 가다듬었고, 그 후에 원수는 그들이 강을 건널갈 때까지 돌처럼 잠잠히 있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곧 설 땅을 찾았고, 나머지 강물은 아주 알아져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천성문으로 나아갔다. 천성터는 구름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 자신들을 접대해 주는 영광의 동반자들을 만난 그들은 마음이 평안해져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올라갔다. 그들이 빛나는 자들과 나눈 이야기는 그 곳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였다. 빛나는 자들은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표현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시온 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천사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는 곳입니다(히12:22~23).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볼 것이며 결코 시들지 않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도착하면 흰 옷을 받게 되고 임금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것입니다(계2:7, 3:4, 22:5). 거기서 여러분은 아래 세상에서 보았던 슬픔과 병고, 괴로움과 죽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예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사 65 :16).”

그들이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보니, 한 무리의 천군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두 빛나는 자들이 그 천군들에게 말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자 천군이 말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모셔오라 명하시기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뵈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다른 천군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19:9).” 마침내 순례자들은 천성문 앞에 이르렀다. 그 문 위에는 금으로 이렇게 써 있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함이로다(계22:14).” 내가 꿈에 보니, 그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 같이 빛났다. 또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었다. 수금은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었고 면류관은 영예의 상징이었다. 대문이 활짝 열려 내가 안을 들여다보니,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다. 또한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곳을 거니는 사람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노래하는 데 쓰는 황금 수금을 들고 있었다. 이 후에 문이 닫혔는데, 그 곳을 들여다본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 ☉ 2014년 1월 교회악지

수련회:  
12월 31(화)-1월 2일(목)

신년주일:  
1월 5일(주일)

제직주일:  
1월 19일(주일)

## ☉ 2014년 1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정덕수/김순자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박혜숙/경덕현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 기도문서

이번 주 애찬: 정덕수 장로  
다음 주일: 고성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1월 8일 수요: 가정예배  
1월 8일 애찬: 가정예배  
1월 12일 주일: 경덕현 집사  
1월 12일 청년부: 박찬준 형제